

#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0,28)



### [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6: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 오늘의 전례: 연중 제12주일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맡겨 전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결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합시다.

### • 제1독서

예레 20,10-13

• **입당송** 시편 28(27),8-9 참조

•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c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웁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 제2독서

로마 5,12-15

• **복음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 • 복음

마태 10,26-33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남북 관계가 단절된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준비하며, 응답의 때에 기꺼이 환대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임금이신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청과 지혜의 덕을 내려 주시어, 그들이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호소를 듣고 대화하며 함께 노력함으로써,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 특별히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미움과 분열에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은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 영성체송

시편 145(144),15 참조

## [아부다비] 복사단 졸업식

- ▶ 수료식 : 6월 20일 (토), 12:00 미사 중
- ▶ 대상자 : 이창주 토마스 아퀴나스 / 강주원 스테파노  
/ 신주원 레오/ 채유찬 파트리시오 (4명)

### Altar Serving



## [아캠]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6 월 30 일 (화) 21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  
(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 번호: 1004)
- ▶ 안 건 : 1) 공동체별 활동 보고 2) 하반기 공동체별 활동 계획 등

## [아캠] 전담 사제 휴가 일정



아캠 전담 사제이신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휴가 일정입니다.

- ▶ 여름 휴가 : 7월 3일(금) ~ 8월 2일(주일)

※ 이 기간 중에도 아부다비 / 두바이 공동체의 한인 '미사'는 지속됩니다.

※ '아캠 주보'는 이 기간 중 발행되지 않으며, 연중 제19주일 주보(8월 9일, 266호)부터 발행이 재개됩니다.

## [교종 레오 14세] 6월 기도 지향

6월: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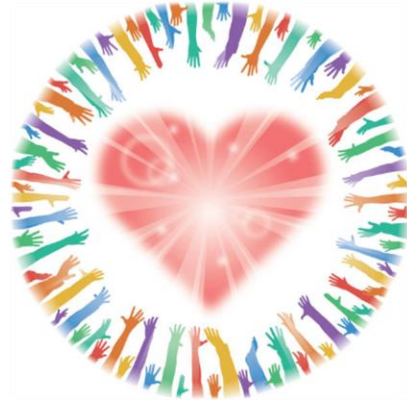
<카타르 공동체>: 미카엘 신부님 사목 방문



6월 10일 (수) ~ 13일 (토)

## '26 아캠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Take Joy



'Together'

in Praying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캠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캠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아캠 온라인 기도 모임

-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캠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캠 전담 사제 **김성인 미카엘 아미.**



# 분노는 나의 문제

살다보면 화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일이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 분노들이 거의 다 본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분노, 사람들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본인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히면 무조건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살기등등하게 돌을 손에 든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씩씩대며 돌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성 심리에서는 이 장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정의로움이 아니라 본인 안의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기 위해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본인 안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감정에 도취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내 안의 분노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보도를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나 심지어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정의로운 것도 있지만 때로 지나친 분노나 적개심은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성가들은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을 보라고 이야기 해온 것입니다.

꼰대 유머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운이 뻗치는지 매일 소리 지르고 부수고 이혼한다 안 한다 울고불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민망해하다 못해 진저리를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당 신부도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아서 언더리를 냈고 말리던 사람들도 지쳐서 다들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언제 다투었냐는 듯 정겹게 길을 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헤어지네 마네 하더니 저게 웬일이야” 하며 다들 놀랐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가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으로 알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치매가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홍성남 마태오 신부(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이시어,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사.진.목.상.



Jordan, 2008 (사진, 글 by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

###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낙오된 어린 양을 찾아 안고 오던 소년은  
 막막한 지평과 가이없는 하늘 사이,  
 올리브나무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춘다.  
 영원에서 비취오는 듯한 검푸른 빛에 감싸여  
 작은 내 안에 깃든 신성을 느끼며 침잠하는 시간.  
 저 올리브나무는 하늘과 땅을, 한 생과 영원을  
 이어주는 비밀스런 빛의 통로인 것만 같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불현듯 그 '빛의 통로'가 열린다.  
 그 빛을 따라 걸을 때 진정한 나에게 이르는 길이 밝아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기여하는 길은  
 다른 무엇도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며  
 더 사랑하고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리브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소년이  
 다시 양을 안고 천천히 별이 뜨는 길을 걸어간다.

##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p><b>ARAKO</b> 두바이 한인 부동산</p> <p>Sale / Rent / Off Plan <b>상당</b></p>   <p>오픈챗</p> <p><b>최은정 셀레나</b> (055. 360. 0733)</p>	<p><b>SUZE</b>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Handmade</li> <li>• 100% Fresh Fruits</li> <li>• 100% Organic Sugar</li> </ul> <p>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p> <p><b>박혜정 안젤라</b> (058. 580. 2814) /  : angela7204</p>	<p><b>GULF KOREAN TIMES</b> 걸프 코리아 타임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li> <li>•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amp; 마케팅 기회 제공</li> <li>•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li> </ul> <p><b>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b> (+971) 50 461 3991 /  : @gktmedia</p>
--	--	--